

GKEDC 전시 선진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 결과보고서

2023. 12. 6. – 12. 9.

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

KDI 한국개발연구원

1 출장 배경 및 목적

- KDI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글로벌지식협력단지(이하 GKEDC)를 운영 중 (2022.5.1.-2024.4.30.)이며, GKEDC는 국내·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복 이후 대한민국 경제발전 과정을 전시, 국제협력사업, 교육 기능으로 집적하여 공유하고 있음.
- 현재 GKEDC는 한국 대표 산업 및 주요 기업의 발전 경험을 조명하기 위해 ‘혁신과 변환의 여정: 추격부터 선도까지’ 기획 전시를 ‘24년 1월 중 개막 목표로 준비 중이며, 추후 통사관* 전시 리노베이션을 통해 미래지향적 비전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.
- * 서막, 경제발전관, 산업발전관, 휴먼관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를 시대 순으로 전시
- 본 출장은 일본 관동 및 관서 지방에 위치한 특색 있는 전시관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전시 리노베이션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연출 기법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.
- 또한 동 출장 일정을 통해 KOTRA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기획 전시를 홍보하고 경제·사회 글로벌 현안을 파악하여 전시관 콘텐츠 개발에 적용하고자 함.

2 출장개요

- 출장기간: 2023년 12월 6일(수) ~ 9일(토) [한국 출·입국일 기준]
- 출장지: 일본 도쿄, 교토, 오사카
- 주요 활동사항
 - (기관소개) GKEDC의 과업 및 주요 활동 전반에 대한 소개를 통해 협력 기관 관계자들의 GKEDC에 대한 이해도 제고
 - (네트워킹) 코트라(KOTRA) 도쿄무역관* 및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(ADBI)** 관계자 대상 GKEDC 기관 및 사업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경제·산업 주요 이슈 및 글로벌 과제 중심 협력방안 논의
 - * ‘2024 일본 도쿄 이차전지 전시회’ 등 기업 참여형 글로벌 전시 다수 기획
 - **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역량강화 연수 등 추진
 - (사례조사) 일본 내 유수의 전시관 사례를 분석하여 GKEDC 기획 전시 및 통사관 전시 콘텐츠 고도화 사업 적용 방안 검토

□ 출장자(총 2인)

#	성명	소속	직함	역할
1	박재현	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운영총괄팀	팀장	사업관리자
2	고예나	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교육개발팀	연구원	사업실무자

3 출장일정

□ 주요 일정

날짜	시간	장소	일정	비고
12/6 (수)	08:40	인천	[출국] 대한민국(김포) 출발	아시아나 항공 (OZ 1085)
	10:45	도쿄	[도착] 일본(도쿄 하네다) 도착	
	14:30-18:00	도쿄	[관계자 면담] 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도쿄무역관 * 최정락 부관장, 최효식 차장 -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(ADBI) * 백승주 부소장	
12/7 (목)	10:00~11:30	도쿄	[사례조사] - 도쿄국립박물관 * 김강식 부장 동행(주일한국문화원)	
	13:30-14:30	도쿄	[사례조사] - teamLab Planets TOKYO	
	15:00-17:30	도쿄	[관계자 면담 및 사례조사] - 재일본한인역사자료관 * 이성시 관장	
12/8 (금)	09:30-12:00	이동	[이동] 도쿄 → 교토	신칸센
	13:30-15:00	교토	[사례조사] - 교토국립박물관	
	15:30-17:00	교토	[사례조사] - 교토문화박물관	

날짜	시간	장소	일정	비고
12/9 (토)	09:00-10:00	이동	[이동] 교토 → 오사카	
	10:00-11:30	오사카	[사례 조사] - 오사카역사박물관	
	13:00-15:30	오사카	[사례 조사] - 오사카시립주택박물관	
	17:10	오사카	[출국] 일본(오사카 간사이) 출발	아시아나 항공 (OZ 113)
	19:05	인천	[입국] 대한민국(인천) 도착	

4 주요 내용

[사례조사]

1. 도쿄국립박물관

□ 일 시: 2023년 12월 7일(목), 10:00-11:30

□ 주요 내용

○ (전시내용 및 특징)

- 1872년에 개관하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 중의 하나로, 국보, 미술 작품, 중요 문화재 등을 시대 순으로 전시함.
- 본관, 효케이관, 동양관, 헤이세이관, 호류지 보물관의 5개 전시관과 구로다 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박물관 본관에는 일본의 미술, 조각, 도자, 도검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, 헤이세이관에는 석기시대부터 근대까지 일본의 역사에 관한 작품이 있음. 동양관은 중국과 한국, 동남아시아, 인도, 이집트의 미술과 공예, 고대유물을 전시함.

○ (시사점)

- 일본에서 역사가 오래된 전시관인 만큼 대규모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디지털·미디어 콘텐츠, 체험형 콘텐츠, 기념품 등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함.
- 특히, 본관에서는 관람객의 위치와 동작을 감지하는 상호작용 기반 디지털 패널을 여러 공간에 활용함으로써, 중요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다채롭게 전달함과 동시에 관람객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.
- 체험형 콘텐츠의 경우, 관람객들이 직접 전시관에 소장된 작품을 스탬프로 찍어 순차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, 자신만의 엽서를 만들어보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 등이 마련되어 있어 박물관 및 전시 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함. GKEDC 어린이 체험관이나 스탬프 투어 등의 체험 활동에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- 무엇보다, 작품별 소개 문구 및 패널 내용 전체를 4개 국어(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한국어)로 기재하였으며, 박물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국어 언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국적의 관람객들이 전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임.

□ 관련 사진



2. teamLab Planets TOKYO

□ 일 시: 2023년 12월 7일(목) 13:30-14:30

□ 주요 내용

○ (전시내용 및 특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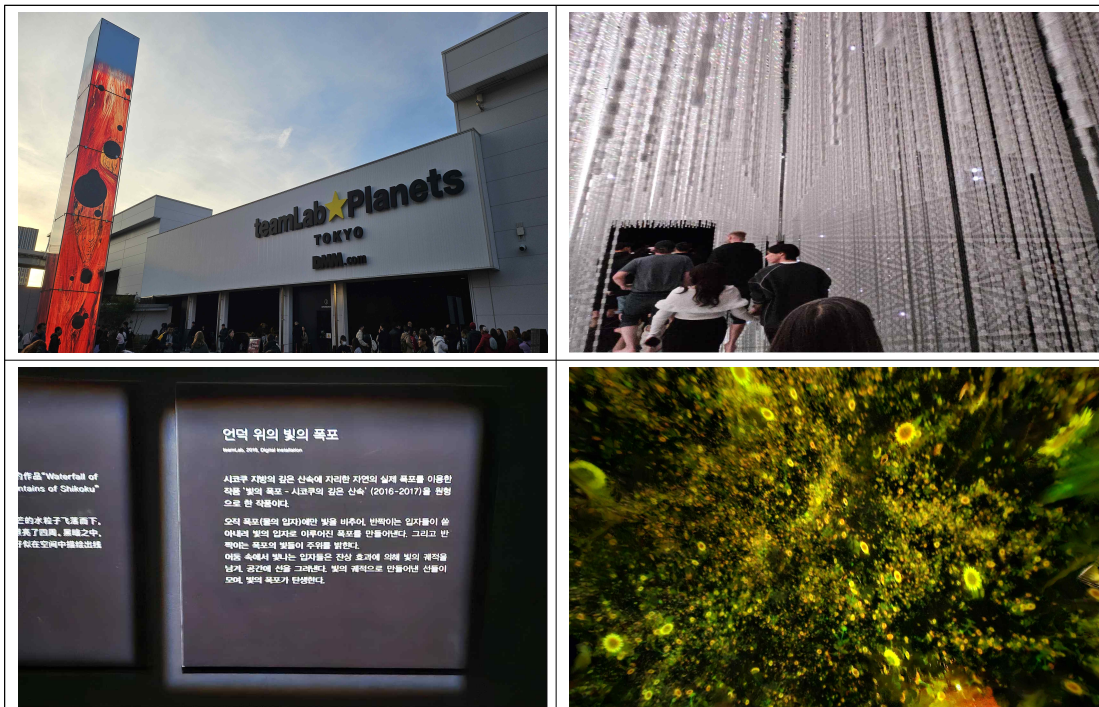
- 디지털 아트 작가 그룹 teamLab이 '물에 들어가는 뮤지엄, 꽃과 하나가 되는 정원'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선보이는 초대형 디지털 아트 전시 작품이며, 4개의 작품 공간과 2개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3D 그래픽과 LED 전광판을 통해 사면의 공간을 감싼 디지털 작품들을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마치 작품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몰입형 전시를 제공함.
- 관람객들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빛과 소리, 향기 등이 결합된 공간

을 탐험하며 물속에서 걸어 다니거나, 빛의 공간을 통과하거나, 꽃밭에 둘러싸이는 등의 경험을 즐길 수 있음.

○ (시사점)

- 일반적인 미술관과는 다르게 관람객들이 실제로 작품을 오감으로 느끼고 상호작용하며 자신만의 전시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. 이러한 체험 형태의 콘텐츠들은 관람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며 전시 전반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향후 GKEDC 전시관 리노베이션 시에도 적용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.
- 많은 관람객들이 한 번에 이동하며 맨발로 물속 공간을 체험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도 혼선이 없도록 동선이 비교적 단순하고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으며, 공간과 공간 사이에도 안내문을 넣거나 가이드를 배치하여 전시에서 의도한 흐름을 명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제시함.
- 마지막 야외 정원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미디어 아트로 구성되어 있기에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하지만, 특정 메시지보다는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.

□ 관련 사진



3. 교토국립박물관

□ 일 시: 2023년 12월 8일(금) 13:30-15:00

□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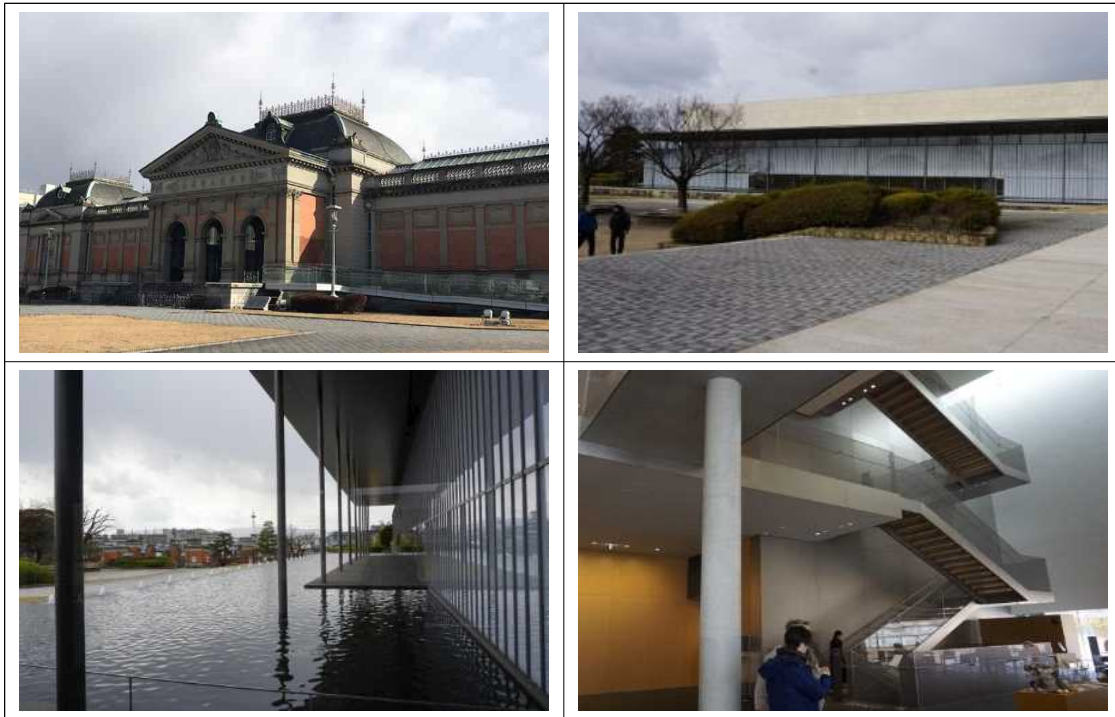
○ (전시내용 및 특징)

- 교토국립박물관은 헤이안에서 에도 시대에 걸친 교토의 문화재를 수집, 보관 및 전시하고 있으며, 국보 27점과 중요 문화재 181점을 포함하여 총 1만 2,000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음.
- 본관(구관)은 1897년에 개관하였으나 현재 외관만 관람이 가능하며, 헤이세이치 신관은 1965년에 설계되었다가 2014년에 리모델링하여 다시 개관하였음. 상설전시는 신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별전시는 구관에서 진행함.
- 현재 독립 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에서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, 본관과 정문은 서구 문화의 영향력이 반영된 메이지 시대 특유의 일본 건축 양식이 특징으로 舊제국교토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 지정되어 있음.

○ (시사점)

- 교토국립박물관의 건물 자체가 마치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어, 문화재로 지정된 만큼이나 건물이 주는 아름다움과 힘이 있었음. 다만, 신관의 내부에 있는 전시물은 사진을 촬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점은 아쉬웠음.
- 1층은 생활사, 2층은 미술사, 3층은 고고학 관련 유물들을 중심으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하는 섹션을 선택해 박물관의 동선을 따라가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.
- 1층 입구에 위치한 많은 불상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이끌고, 칼, 그림, 서예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이 한·중·일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음. 비교적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압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.
- 직원들은 관람객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며, 동선 안내와 작품 설명도 꼼꼼히 진행함. 전시 패널은 일본어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,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한국어 및 영어 설명도 확인할 수 있음.
- GKEDC 역시 건물 자체가 가진 역사적·문화적 가치와 스토리, 의의를 극대화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

□ 관련 사진



4. 교토문화박물관

□ 일 시: 2023년 12월 8일(금) 15:30-17:00

□ 주요 내용

○ (전시내용 및 특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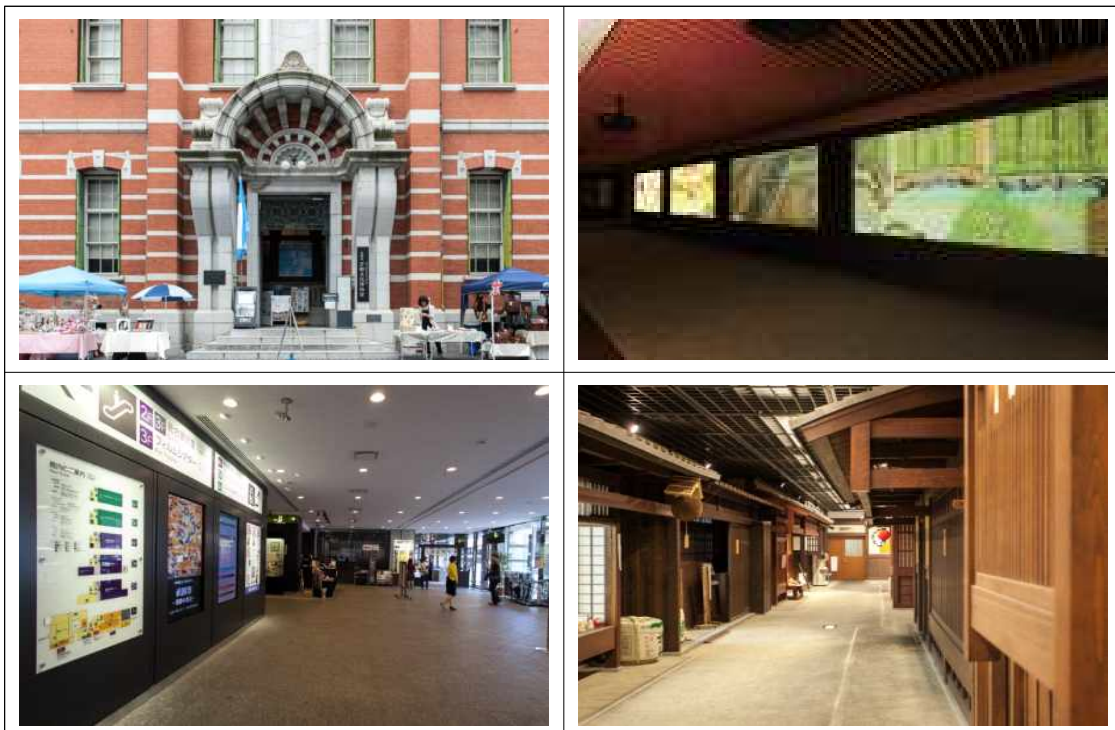
- 교토문화박물관은 헤이안 건도 1,2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, 교토 문화와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종합 문화 시설로서 기능하고 있음.
-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교토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역사관, 교토 출신 화가, 서양화가, 조각가, 공예가 등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, 교토의 특색을 살린 시각 문화를 전시하고 상영하는 영화도서관 센터 등 3가지 기능을 집적한 '종합전시'를 상시 운영함.
- 본관은 총 6층이며 2~6층이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음. 2~3층은 테마 전시실로 운영되고 있으며, 4층은 특별 전시실, 5~6층은 박물관 갤러리로 사용됨. 별관은 舊일본은행의 교토 지점으로,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홀에서는 특별전이나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됨.
- 옛 교토의 모습을 본뜬 모형, 에도 시대의 교토를 재현한 실물 크기의

거리 등 단순히 관람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관람객들이 직접 해당 시대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됨.

○ (시사점)

- 2층 테마 전시실에 있는 ‘교토 역사’ 구역에서는 1,200여 년 동안 다양한 시대를 겪은 역사적 도시인 교토의 모습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음. 각 시대상과 생활문화의 단면이 수묵화 방식으로 그려진 교토 지도를 보여줌. 시대별 역사와 발전과정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GKEDC 통사관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음.
- 3~4층에는 교토의 미술 작품과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, 영화 상영실도 있어 교토와 관련이 있는 극영화들을 정기적으로 상영함.
- 식당 주변은 에도 시대 교토의 전통적인 시가지 풍경을 재현하여 주류 매장, 숯 매장, 쌀 매장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 공예품을 함께 판매함.
- 각종 문화 및 상업 시설이 교토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의 내용과 어우러지도록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임. GKEDC 전시관 외부에도 전시의 주제를 표현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장치나 킬러콘텐츠 등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관련 사진



5. 오사카역사박물관

□ 일 시: 2023년 12월 9일(토) 10:00-11:30

□ 주요 내용

○ (전시내용 및 특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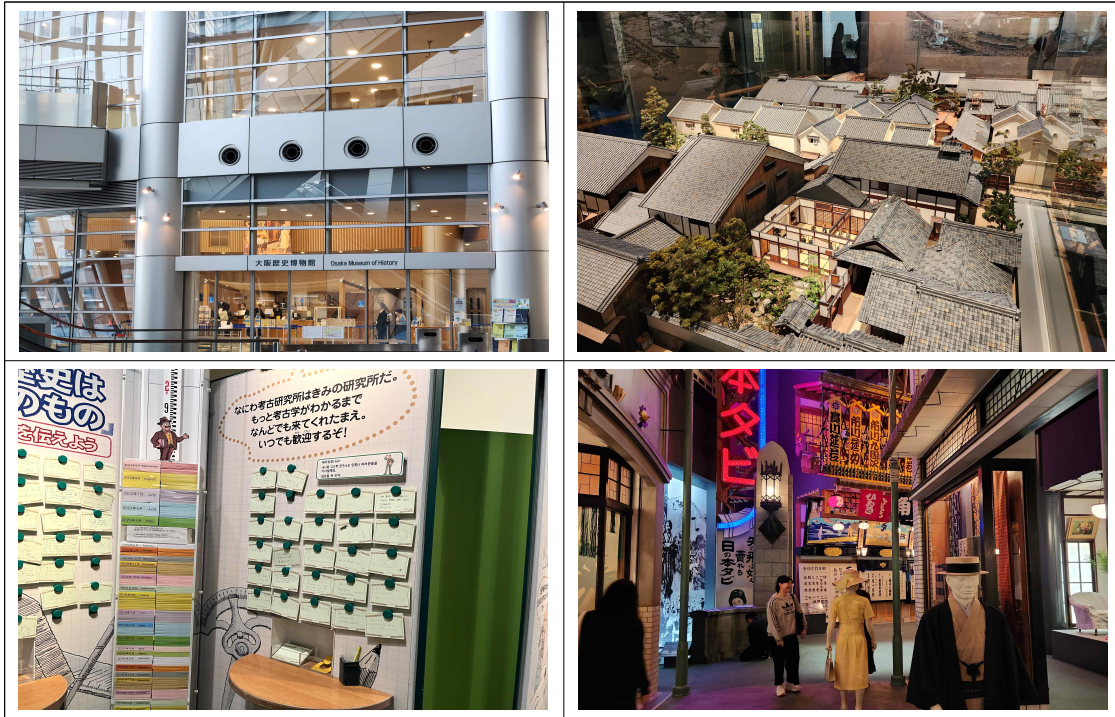
- 고대 오사카 중심지였던 나니와 궁궐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니와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오사카 지역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음.
- 물의 도시 오사카를 상징하는 배를 형상화하였으며 10층에서부터 아래 층으로 내려오며 관람하도록 설계되어, 하나의 층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하나의 시대를 전시한다는 점이 특징임.
- 실물 크기 재현과 영상 등을 통해 오사카를 이해하는 <하이라이트 코스>와 전시품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<상세 코스>를 제공해 관람 형태와 관심도에 따른 두 가지 전시 관람 코스를 제공함.
- 궁정 및 고대 시대 관인의 모습과 역사를 소개하는 10층, 물의 도시 오사카의 번영과 에도 시대를 소개하는 9층, 발굴 현장에 대한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8층, 다이쇼 말기부터 쇼와 초기에 변화했던 신사이바시수지, 도톤보리 등의 거리를 재현한 7층으로 구성됨.

○ (시사점)

- 오사카 내 시대별 발전사를 층별로 재현하면서, 해당 지역의 발전 모습과 생활의 변화 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음. GKEDC에서도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으므로 입체도, 미니어처 전시, 수도 거리 실물 크기 재현 등 다양한 연출 기법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특히 3차원의 실물 및 축소 모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재현한 디오라마 전시는 GKEDC 통서관에서 적용한다면 시대별 경제 및 산업 현장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전시 형태에 따라 전시 관람 코스를 구분하거나, 어린이 관람객을 고려하여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 발굴 및 고고학 정보를 전달하거나, 여러 전시 공간과 전시물 중간 중간에 퀴즈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관람객들이 흥미롭게 전시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함.
- 복층으로 구성된 8층과 7층 사이에 있는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다채롭

고 독특한 전시의 공간감을 제공하고 있음. 관과 관 사이의 공간도 하나의 전시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연출하는 방안을 고찰해볼 필요 있음.

□ 관련 사진



6. 오사카시립주택박물관

□ 일 시: 2023년 12월 9일(토) 13:00-15:30

□ 주요 내용

○ (전시내용 및 특징)

- 2001년 4월에 개관하여 오사카시의 생활사와 도시발전사, 도시문화를 정보화하고 연구하여 전시·교육·체험 콘텐츠로 제공함으로써 오사카의 현재를 관찰하고 미래상을 기획하는데 기여함.
- 상설전시는 10층 전망대, 9층 ‘에도 시대로의 타임슬립’, 8층 ‘메이지·다이쇼·쇼와 시대의 오사카’, 8층 기획전시관으로 구분되며 10층부터 시대별 오사카 거주자의 역사를 재현함.
- 9층 상설전시관에서는 에도 시대 가상 마을의 거리를 실물 크기로 재현하고 있음. 8층 상설전시관은 1800년대 중반 메이지 시대부터 1900년대 후반 쇼와 시대까지의 오사카 거리를 디오라마와 유물로 전시함. 한

가족의 거주 변화 이야기를 영상과 모형으로 보여주는 극장 <그 날 그 집>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.

○ (시사점)

- 과거 거리 풍경의 재현뿐만 아니라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변화해 가는 마을의 모습, 환경, 생활상 등을 다양한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관람객들의 몰입도를 탁월하게 높이고 있음.
- 전시 패널에 더불어 QR 코드 해설이나 간단한 활동(숨은 전시물 찾기, 오타 찾기 등), 영상, 극장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시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현함.
- 전시 외에도 건축 관련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, 공예품 만들기, 오락(전통 놀이), 다도 프로그램, 기모노 체험 등 여러 교육이나 체험 활동 등이 마련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음.
-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해당 시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, 실물 재현을 통해 관람객이 당시 거리와 주거지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된 것과 같이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은 전시 연계 교육 등을 위해 벤치마킹해도 좋을 듯함.

□ 관련 사진



[관계자 면담 및 사례조사]

7. KOTRA 도쿄무역관

□ 일 시: 2023년 12월 6일(수) 14:30-16:00

□ 장 소: KOTRA 도쿄무역관

□ 참석자

- (내부) 박재현, 고예나(직함 생략)
- (외부) 최정락 부관장, 최효식 차장(이상 KOTRA 도쿄무역관), 권미경 사무관(이상 기획재정부)

□ 주요 내용

- (회의배경) GKEDC는 기관 소개 및 전시 홍보, 향후 양 기관 협력 가능성 타진 등을 위해 파트너십 미팅 제안
- (GKEDC 소개) 기관의 설립목적을 소개하고, 현재 준비 중인 기획전시 및 전시관 리노베이션 등 관련 계획 공유
 - 대한민국 기업전을 통해 한국의 대표 산업 및 기업의 발전 경험을 조명
 - 전시관 리노베이션 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경제발전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 방향을 고려 중
- (KOTRA 도쿄무역관 소개) 국가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서 일본 내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 업체들과 정보 교류 및 관련 행사를 추진
 - ‘2024 K스넥 일본 전시회’ 등 현지 기업과 한국 중소기업 등이 참가하는 다양한 전시회, 수출 지원 세미나 등을 개최
- (협력방안 논의) 한·일 수교 60주년 기념행사·전시 등 관련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 협력 내용 검토 필요
 - 무역관에서는 상설전시보다는 주로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기획 전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, 주제나 방향성이 적합하다면 GKEDC 협업 또한 검토 가능
 - 한·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 기관 간 행사 및 전시 등을 2025년 오사카·간사이 만국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는 견해를 전달
 - 구체적인 협업 방안 및 관련 지원사항 등은 추후 추가적인 논의 필요

□ 관련 사진



8.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

□ 일 시: 2023년 12월 6일(수) 16:30-18:00

□ 장 소: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(ADBBI)

□ 참석자

- (내부) 박재현, 고예나(직함 생략)
- (외부) 백승주 부소장(이상 ADBBI), 권미경 사무관(이상 기획재정부)

□ 주요 내용

- (회의배경) GKEDC는 국제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ADBBI와 공동사업 및 연구 등 추진가능성을 협의
- (GKEDC 소개) GKEDC 사업 진행 현황 소개, 전시·교육·국제협력 사업 관련 양 기관 간 지속적 협력의 필요성 강조
 - 2024년에 예정된 기획전시 및 리노베이션 사업 등 주요 계획 공유
- (ADBBI 소개) 아시아·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과 장기성장,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정책 연구, 역량강화 연수, 국제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을 추진
 - 거시경제 정책, 무역 및 금융, 지속가능성 등 경제·사회 발전의 주요 요인이나 과제와 관련된 이슈에 관심
- (협력방안 논의) 핵심 경제·사회 현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협업 주제 발굴 필요

- ADBI에서는 기후변화, 신재생 에너지, 성주류화, 디지털 전환 등 시급한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된 온·오프라인 행사*도 다수 개최
 - * 2023년 5월 KDI GKEDC와 ADBI는 기후변화대응 공동세미나(디지털, 기후, 그리고 회복력)를 개최
- GKEDC에서도 향후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양 기관의 공통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, 연수, 컨퍼런스,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에 상호 동의

9. 재일한인역사자료관

☐ 일 시: 2023년 12월 7일(목) 15:00-17:30

☐ 장 소: 재일한인역사자료관

☐ 참석자

- (내부) 박재현, 고예나(직함 생략)
- (외부) 이성시 관장(이상 재일한인역사자료관), 권미경 사무관(이상 기획재정부)

☐ 주요 내용

- (회의배경) GKEDC는 기관 소개 및 전시 사례 조사,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일본 내 한국중앙회관 별관에 위치하는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방문 및 업무협약의 실시
- (GKEDC 소개) 기관의 설립목적 및 사업 운영 현황, 향후 계획 등 공유
- (재일한인역사자료관 소개) 재일한인들이 일본 도항부터 현재까지 겪은 주요 역사적 사건, 투쟁과 성취 등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임을 밝히며, 현재 진행 중인 전시를 소개
 - 상설전시를 통해 재일한인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, 인류사회가 안고 있는 다문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과 고민,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을 전달
 - 기획전시실에서는 관동대지진 100년을 맞아 <1923~2023 역사의 증언자들> 전시를 개최 중
- (협력방안 논의) 향후 전시 및 행사 공동 개최 등을 위한 양 기관 협력의사 확인

- GKEDC는 전시를 통해 과거 고난의 역사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, 한·일 수교 60주년 등을 계기로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의사 전달
- 역사자료관 측에서는 전시 외에도 재일한인의 역사를 재고하는 세미나, 심포지움, 특별전 등 각종 행사도 개최하고 있으므로, 양국의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전시 또는 행사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

□ 관련 사진

